

대구 및 도서지방 주부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대구, 울릉도, 한산도 지역을 중심으로—

박 영 숙

대구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A Study on Image and Consumption about Instant Food of Homemakers in Ullungdo, Hansando, and Daegu

Young-Sook Par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aegu University

Abstract

A survey on images and consumption for Instant food for 450 homemakers in Ullungdo, Hansando and Daegu area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hought of homemakers food took 'easy to cook' and 'save time' as the best advantage in the image on instant food, while 'tasty' as the lowest one. It appeared that characteristic variables as household income, homemaker's education, homemaker's age, and area had influence on the image about instant food.

2) Processed food(ham, sausage)was purchased the most, while fermented food(kimchi, gochuchang) was purchased the least. It appeared that characteristics variables as household income, homemaker's education and homemaker's age had influence on the purchasing degree of instant food.

3)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homemaker's image on instant food and household income(0.247) and area(0.211).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homemaker's image on instant food and homemaker's age(-0.171).

4) Homemaker's purchasing degree about instant food had positiv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homemaker's image on instant food(0.389), household income(0.247) and area(0.211) and had negativ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homemaker's age(-0.190).

5) Fat intake had positiv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homemaker's purchasing degree (0.281) and homemaker's image(0.144) on instant food. Energy intake had positiv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homemaker's purchasing degree(0.206) and homemaker's image(0.138) on instant food.

서 론

현대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가정과 직장의 이중역할 수행으로 주부의 역할과중에 따른 편의성 추구 경향은 식생활 관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공식품의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우리의 식생활 패턴을 많이 변모시키고 있다.^{1,2,3,4)} 1970년대 부서의 경제성장은 가공식품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시켜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1986년의 주부가공식품의 생산량은 1975년도와 비교하면, 대두유 25.3배, 우유 7.2배, 유산균발효유 38.6배, 간장 2.6배, 콜라가 9.7배로 증가되었다⁵⁾. 가공식품의 종류와 양의 증가는 식품 첨가물의 사용등 생산과 유통과정 및 선택에서 안정성문제와 가공식품 사용 증가는 불균형된 영양소 섭취등의 면에서 식생활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식품의 소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공식품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주부의 가공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부의 직업유무는 가공식품의 소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⁶⁾. 그러나 취업 주부를 저급직과 고급직으로 분리한 뒤 가공식품의 소비를 조사한 결과 저급직 주부가 가공식품의 소비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⁷⁾ 가정에서 소비된 식품의 종류와 양은 주부의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수입, 가족형태 및 가족수 등과 같은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8,6,7,8,9,10,11)} Burk 에 의하면 식료품 소비지출에 대한 지역과 도시화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본 연구는 식생활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 직결된 영양섭취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주부의 인식과 소비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정도에 지역 및 주부의 특성들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여 소비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울릉도, 한산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대상자들은 울릉도에서 168명 한산도에서 112명 대구에서 17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기간은 1992년 6월 24일 부터 6월 27일, 1993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 9월 18일부터 9월 28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 및 가공식품의 구입빈도 그리고 영양소 섭취량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가정주부들과 직접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¹³⁾를 조사하기 위하여 <좋아한다> <맛있다> <건강에 좋다> <영양가가 좋다> <가격이 비싸다> <조리가 간편하다> <위생적이다> <시간이 절약된다> <자주 먹는다> <사회 경제 수준을 나타낸다>의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정말 그렇다'에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공식품의 구입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구입하지 않는다'에 1점, '대체로 구입하지 않는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 구입한다' 4점, '아주 자주 구입한다' 5점으로 처리하여 각 가공식품 구입정도를 평균하여 점수로 표시하였다. 영양소 섭취량은 문¹⁴⁾의 간이식 식품섭취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하루의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여 한국인 영양권장량과 비교 하였다.

3. 자료 분석

조사대상자는 450명으로 450부의 설명지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44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주부들의 일반사항은 빈도분포와 백분율,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을 알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memaker

Chararacteristics	Group	Frequency(%)
Household income	below 200000(won)	34(8.8)
	210000-400000	32(8.2)
	410000-600000	61(15.6)
	610000-800000	75(19.2)
	810000-1000000	105(26.9)
	over 1000000	83(21.3)
Job of homemaker	have	133(30.6)
	none	302(69.4)
Education of homemaker	none	120(27.8)
	elementary school	103(23.9)
	middle school	126(29.2)
	high school	15(3.5)
	junior college	28(6.5)
	over university	39(9.0)
Age of homemaker	below 30's old	43(9.8)
	31's-40's old	121(27.6)
	41's-50's old	127(29.0)
	51's-60's old	145g33.1)
	over 61's old	2(0.5)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355(81.4)
	extended family	81(18.6)
Residency of homemaker	Ullungdo	165(37.0)
	Hansando	111(24.9)
	Deagu	170(38.1)

주부의 특성에 따른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도 및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정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지역에 따른 영양소 섭취상태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주부의 특성 및 영양소 섭취와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정도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Table 1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가정의 수입은 20만원이하가 8.8%, 21-40만원이

8.2%, 41-60만원이 15.6%, 61-80만원이 19.2%, 81-100만원이 26.9%, 100만원이상이 21.3%이었다. 직업을 가진 주부가 30.6%이었으면 주부의 교육 정도는 무학이 27.8%, 국졸이 23.9%, 중졸이 29.2%, 고졸이 3.5%, 전문대졸이 6.5%, 대졸이상이 9.0%이었으며 주부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9.8%, 31-40세가 27.6%, 41-50세가 29.0%, 51-60세가 33.1%, 61세 이상이 0.5%였으며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81.4%, 확대가족이 18.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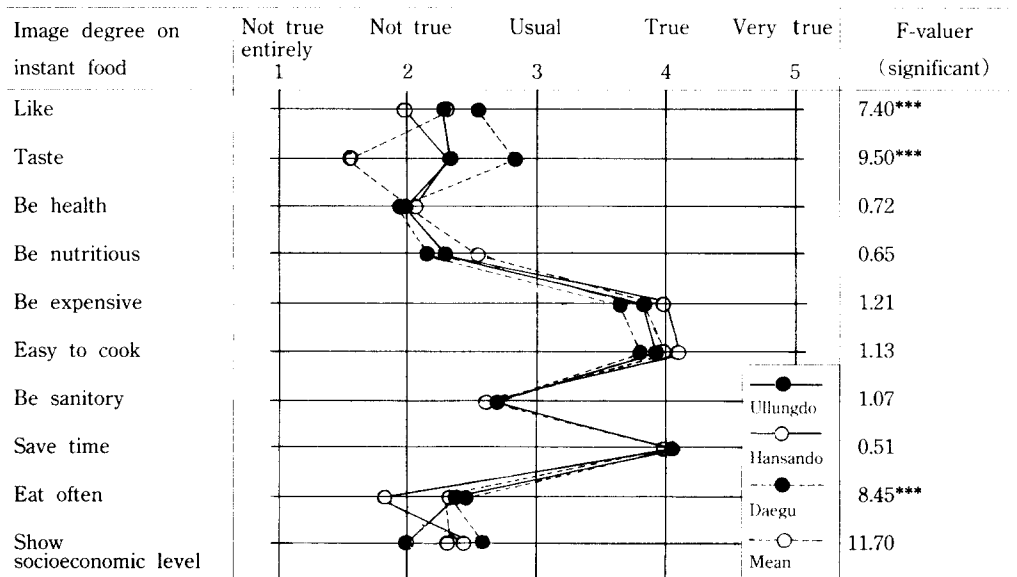
2. 편이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

편이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좋아한다> <맛있다> <건강에 좋다> <영

양가가 좋다> <가격이 비싸다> <조리가 간편하다> <위생적이다> <시간이 절약된다> <자주 먹는다> <사회 경제 수준을 나타낸다>의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의 Likert형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조리가 간편하다가 4.0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시간이 절약된다가 3.97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가격이 비싸다는 3.89, 위생적이라는 2.71, 사회 경제 수준을 나타낸다가 2.43, 좋아한다가 2.27, 영양가가 좋다가 2.25, 자주 먹는다는 2.21, 건강에 좋다가 1.99, 맛있다는 1.52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결과는 서울 지역¹⁰⁾ 및 도시지역⁷⁾과 비교하면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시간이 절약된다와 조리가 간편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건강에 좋다 혹은 영양에 좋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경향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 주부들이 좋아한다, 맛있다, 자주 먹는다 그리고 사회 경제 수준을 나타낸다는 인식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서 지역이지만 울릉도 지역¹⁵⁾ 주부들이 한산도 지역¹⁶⁾

주부들 보다 자주 먹는다는 인식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울릉도 지역의 교통이 불편하여 운반취급이 편리한 가공식품의 이용이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공식품에 대한 여러가지 인식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몇개의 잠재적인 요인에 의해 이미 설명되었으면 본 조사에서도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위하여 Varimax Rotation으로 하여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factor 1에는 <좋아한다> <맛있다> <자주 먹는다>에 대한 평가항목의 인자부하량이 다른항목의 인자부하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기호인자'이라고 할 수 있으며 factor 2에는 <건강에 좋다> <영양가가 좋다> <위생적이다> <사회 경제수준을 나타낸다>에 대한 평가항목의 인자부하량이 다른항목의 인자부하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건강인자'이라고 할 수 있으며 factor 3에는 <가격이 비싸다> <조리가 간편하다> <시간이 절약된다>에 대한 평가항목의 인자부하량이 다른항목의 인자부하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품질인자'이라고 이름 붙였으며¹⁷⁾ 본연구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을 기호인자,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Fig. 1. Image Degree on Instant Food.

Table 2. Factor Analysis of Image on Instant Food(Varimax Rotation)

	Factor1	Factor2	Factor3
Like	<u>.88576</u>	.12281	-.01114
Taste	<u>.75962</u>	.29189	.04485
Good for health	.31616	<u>.75921</u>	-.02397
Be nutritious	.24551	<u>.81726</u>	.05071
Be expensive	.06522	.02450	<u>.65223</u>
Be easy to cook	.20804	.06759	<u>.82281</u>
Be sanitary	.10712	<u>.55731</u>	.24143
Save time	.10107	.12757	<u>.80168</u>
Eat often	<u>.71910</u>	.11214	.18345
Show socioeconomic level	.00120	<u>.64079</u>	.02358

건강인자와 품질인자로 함축될 수 있다.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주부의 일반사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인자에 대해 주부의 일반사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기호인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Scheffe-test의 결과 차이를 보인 집단은 20만원 미만의 집단, 21-40만원의 집단, 1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품질인자에서는 20만원미만 집단이 다른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건강인자 대해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부의 취업상태 및 가족형태에 따른 가공식품의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주부의 직업유무는 가공식품의 소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³⁴⁾ 그러나 취업주부를 저급직과 고급직으로 분리한 뒤 가공식품의 소비를 조사한 결과 저급직 주부가 가공식품의 소비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³⁾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주부 중에서 고소득층 고급직 주부들이 가공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공식품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저렴한 식품이라기 보다는 고급식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⁶⁾.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이상 및 국졸이하에서 기호인자에 대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및 중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인자와 품질인자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주부의 연령별로는 50세이하 집단이 50세이상 집단보다 기호인자에 대해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인자 및 품질인자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이 울릉도 및 한산도 지역보다 기호인자에 대해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인자 및 품질인자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이 주부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인자 분석한 결과 기호인자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가공식품의 구입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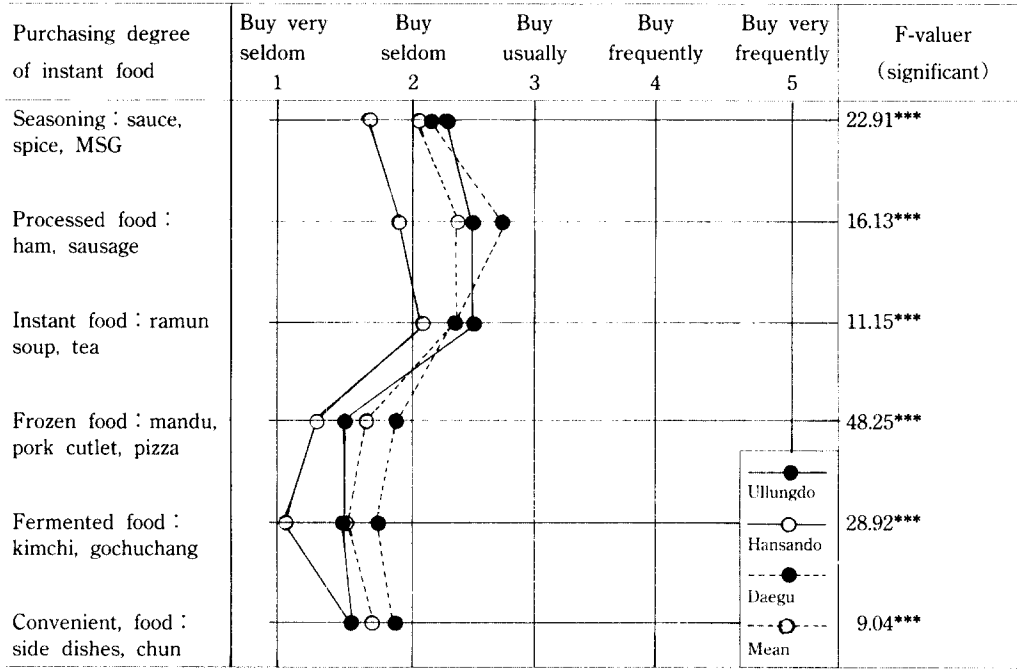
본 조사의 가공식품 소비정도는 Fig 2와 같이 평균적으로 소세지 및 햄을 위시한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였고 다음이 인스턴트식품(라면류, 차류), 조미료(소오스, 화학조미료), 완전식품(일인용 포장반찬, 부침개), 냉동식품(돈가스, 만두류) 그리고 저장발효식품(고추장, 김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등¹⁵⁾이 조사한 울릉도 지역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이고 가장 적게 구입하는 가공식품으로 냉동식품과 저장 발효식품이라는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임등¹³⁾이

Table 3. Preference factor, Health factor and Quality factor by Characteristics of Homemaker

Characteristics	Group	Preference factor	F value	Health factor	F value	Quality factor	F value
Household income	below 200000(won)	2.14(33)		2.09(30)		3.58(31)	
	210000 - 400000	2.11(31)		2.48(28)		4.09(31)	
	410000 - 600000	2.17(56)	F=2.23*	2.28(51)	F=0.86	4.13(54)	F=2.40*
	610000 - 800000	2.33(71)		2.37(65)		4.07(69)	
	810000 - 1000000	2.36(102)		2.27(97)		3.97(100)	
	over 1000000	2.60(83)		2.39(82)		3.85(83)	
Job of homemaker	have	2.42(129)	F=0.92	2.38(124)	F=0.29	3.84(127)	F=2.69
	none	2.29(228)		2.31(268)		4.03(280)	
Education of homemaker	none	2.16(119)		2.32(102)		3.98(114)	
	elementary school	2.23(98)		2.30(94)		4.01(96)	
	middle school	2.59(119)	F=4.59**	2.32(117)	F=0.81	3.96(118)	F=0.21
	high school	2.40(15)		2.05(15)		4.07(15)	
	junior college	2.68(28)		2.378(28)		3.83(28)	
	over university	1.97(35)		2.55(31)		3.99(32)	
Age of homemaker	below 30's old	2.57(42)		2.32(42)		4.11(42)	
	31's - 40's old	2.52(112)		2.34(108)		3.97(110)	
	41's - 50's old	2.40(125)	F=5.79***	2.37(114)	F=0.32	4.07(124)	F=1.78
	51's - 60's old	2.05(140)		2.29(128)		3.84(132)	
	over 61's old	2.00(2)		2.75(2)		3.83(2)	
	nuclear family	2.34(340)	F=0.32	2.34(320)	F=0.22	3.96(331)	F=0.52
Type of family	extended family	2.27(79)		2.28(72)		4.00(77)	
	Ullugdo	2.24(137)		2.21(135)		3.99(147)	
	Hansando	1.88(90)	F=26.64***	2.39(104)	F=2.70	4.06(106)	F=1.32
	Daegu	2.47(166)		2.40(166)		3.90(168)	

Values are Mean(frequency).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1$.***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01$.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01$.

Fig. 2. Purchasing Degree on Instant Food.

보고한 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한산도 지역 주부들의 가공식품 구입 정도가 울릉도 지역이나 대구지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에 있어서는 조미료,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냉동식품, 저장발효식품 그리고 완전식품의 모든 품목에서 구입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지역 주부들의 가공식품 구입정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4에 의하면 주부의 특성에 따라 가공식품의 구입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수준,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그리고 지역에 따라 주부의 가공식품 구입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소득이 100만원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공식품 구입정도가 높았으며 주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집단의 가공식품 구입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주부의 연령이 31-40세와 41-50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공식품 구입정도가 높았다. 지역에 있어서는 대구시와 울릉도 지역이 한산도

지역 보다 전체적인 가공식품 구입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가공식품 구입정도는 가계수입이 높고, 주부의 교육 수준이 높고,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지역이 도시일수록 가공식품의 구입정도가 높았다.

4. 주부의 특성,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와 가공식품 구입정도의 상관 관계

Table 5에 의하면 주부의 가공식품의 구입정도는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0.389), 가계소득 수준(0.247), 지역(0.211)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주부의 연령(-0.190)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는 지역(0.144)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주부의 연령(-0.171)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긍정적인수록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이 도시화수록 가공식품의 구입정도는 높아지고 주

Table 4. Purchasing Degree of Instant Food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memaker

Characteristics	Group	Purchasing Degree	F value
Household income	below 200000(won)	1.91(53)	F = 3.52**
	210000 - 400000	2.11(30)	
	410000 - 600000	2.20(46)	
	610000 - 800000	2.20(66)	
	810000 - 1000000	2.25(97)	
	over 1000000	2.48(81)	
Job of homemaker	have	2.36(124)	F = 2.74
	none	2.20(265)	
Education of homemaker	none	2.10(103)	F = 8.69***
	elementary school	2.28(88)	
	middle school	2.45(116)	
	high school	2.43(15)	
	junior college	2.54(28)	
	over university	1.68(31)	
Age of homemaker	below 30's old	2.28(42)	F = 7.27***
	31's - 40's old	2.37(102)	
	41's - 50's old	2.41(114)	
	51's - 60's old	2.02(13)	
	over 61's old	1.86(2)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2.28(339)	F = 2.08
	extended family	2.14(78)	
Residency of homemaker	Ullungdo	2.24(137)	F = 26.64***
	Hansando	1.88(90)	
	Daegu	2.47(166)	

Values are mean(frequency).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1$.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Purchasing degree and Image degree on Instant Food with Characteristics of Homemakers

Characteristics	Purchasing degree	Image degree
Image degree	0.389**	1.000
Area	0.211**	0.144**
Household income	0.247**	0.144*
Job of homemaker	-0.088	-0.022
Education of homemaker	0.063	0.029
Age of Homemaker	-0.190**	-0.171*
Type of family	-0.108	0.024

*** $P < 0.001$ ** $P < 0.01$ * $P < 0.05$.

Table 6. Nutrient Intake of Homemaker per Day

Nutrient	Ullungdo	Hansando	Daegu	F value	RDA
	(Mean±SD)	(Mean±SD)	(Mean±SD)		
Protein(g)	69.6 ± 20.0	79.5 ± 21.2	83.9 ± 83.2	F= 2.94	60
Fat(g)	45.3 ± 16.1	42.4 ± 14.7	50.3 ± 12.3	F= 10.67***	.
CHO(g)	371.4 ± 85.4	354.8 ± 94.3	341.4 ± 57.5	F= 2.71	.
Fe(mg)	16.4 ± 4.1	19.8 ± 4.4	18.0 ± 8.9	F= 8.93***	18
Ca(mg)	803.8 ± 204.8	841.9 ± 249.5	792.9 ± 196.1	F= 1.97	600
Vit A(RE)	731.6 ± 164.0	740.5 ± 153.5	667.4 ± 159.3	F= 1.35	700
Vit B ₁ (mg)	1.15± 0.29	1.36± 0.30	1.17± 0.62	F= 8.38***	1.00
Vit B ₂ (mg)	1.32± 0.34	1.47± 0.30	1.39± 0.63	F= 3.46*	1.20
Niacin(mg)	11.4 ± 2.8	13.7 ± 3.1	11.1 ± 2.4	F= 33.86***	13.0
Vit C(mg)	51.7 ± 18.4	61.6 ± 58.6	61.2 ± 18.3	F= 7.49***	55.00
Calorie(Kcal)	1956.5 ± 282.8	2118.6 ± 301.2	2203.1 ± 508.5	F= 1.86	2000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of Purchasing Degree and Image Degree on Instant Food with Nutrient Intake of Homemaker

Nutrient Intake	Purchasing degree	Image degree
Protein	-0.019	-0.124
Fat	0.281**	0.144*
CHO	0.004	0.046
Fe	0.025	0.038
Ca	0.088	0.112
Vit A	0.070	0.119
Vit B ₁	-0.022	0.034
Vit B ₂	0.115	0.118
Niacin	-0.010	-0.010
Vit C	0.055	0.063
Calorie	0.206**	0.138*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공식품의 구입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5. 영양소 섭취량

영양소 섭취실태는 Table 6에서와 같이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지방

섭취에 있어서는 대구지역이 다른지역 보다 높고 한산도지역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다른지역보다 더 높다. 칼로리 섭취는 대구지역이 가장 높고 다음이 한산도 지역이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에 있어서는 한산도 지역이 철분, 비타민 B₁, 비타민 B₂, 나이아신과

비타민C 섭취에 있어서 다른 두지역보다 더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한국인 영양권장량¹⁸⁾과 비교하여 보면 울릉도지역에서 철분, 나이아신과 비타민 C 섭취가 영양 권장량보다 부족하였으며 한산도 지역에서 모든 영양소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보다 많았으며 대구지역에서 비타민 A와 나이아신 섭취가 영양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1989년 한국인의 국민영양조사 보고¹⁹⁾에서 섭취 부족한 영양소였던 칼슘과 비타민 A를 울릉도 지역과 한산도 지역에서는 섭취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지역에서 칼슘섭취는 충분하나 비타민 A 섭취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가공식품에대한 인식도 및 소비정도와 영양소 섭취상태의 상관관계

Table 7에 의하면 영양소 중에서 지방 섭취 상태는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0.1438)과 주부의 가공식품 소비정도(0.2805)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정도가 긍정적일수록 주부의 가공식품의 구입정도가 높을수록 지방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칼로리 섭취도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0.1375)과 주부의 가공식품 구입정도(0.2057)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긍정적이고 가공식품의 소비가 많을수록 지방과 열량 섭취가 높고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부정적이고 가공식품의 소비가 적은 한산도지역의 영양소 섭취는 다른지역에 비하여 철분, 칼슘, 비타민 B₁, 비타민 B₂, 나이아신, 그리고 비타민 C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결론 및 요약

울릉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168명 한산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112명 대구에 거주하는 주부 170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

및 소비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는 Likert형 5점 척도에서 조리가 간편하다 4.04로서 가장 높고, 시간이 절약된다 3.97, 가격이 비싸다 3.89, 위생적이다 2.71, 사회 경제 수준을 나타낸다 2.43, 좋아한다 2.27, 영양가가 좋다 2.25, 자주 먹는다 2.21, 건강에 좋다 1.99, 맛있다 1.52로서 가장 낮았다.

대구지역 주부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주먹는다는 항목에서는 울릉도지역 주부들의 인식도가 한산도지역 주부들의 인식도 보다 더 높았다.

2.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기호인자(좋아한다, 맛있다, 자주 먹는다), 건강인자(건강에 좋다, 영양가가 좋다, 위생적이다, 사회 경제 수준을 나타낸다)와 품질인자(가격이 비싸다, 조리가 간편하다, 시간이 절약된다)로 정리되며 지역, 가계소득, 주부의 교육수준과 주부의 연령에 따라 기호인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부의 취업상태와 가족형태에 따른 주부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가공식품의 구입정도는 가공식품(소세지 햄), 인스턴트식품(라면류, 차류), 조미료(소오스, 화학조미료), 완전식품(일인용 포장반찬, 부침개), 냉동식품(돈까스, 만두류), 그리고 저장발효식품(고추장, 김치) 순이었다. 지역에 따라 가공식품의 구입정도는 대구지역의 가공식품 구입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한산도지역의 가공식품의 구입정도가 가장 낮았다. 가공식품의 구입정도는 가계수입이 높고,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구입정도가 높았다.

4. 주부의 가공식품의 구입정도는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0.389), 가계소득 수준(0.247), 지역(0.211) 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주부의 연령(-0.190)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는 지역(0.144)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주부의 연령(-0.171)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5. 지방섭취에 있어서 대구지역이 높았으며, 철분, 비타민 B₁, 비타민 B₂, 나이아신과 비타민 C 섭취에 있어서 한산도지역이 높았다.

6. 영양소 중에서 지방 섭취는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0.144)과 주부의 가공식품 구입정도(0.281)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열량 섭취도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0.138)과 주부의 가공식품 구입정도(0.206)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긍정적이고 가공식품의 소비정도가 많을수록 지방과 열량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Strober & Weinberg C.B.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41-147, 1977.
2. Strober & Weinberg C.B.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39-348, 1980.
3. Schaninger C.M. & Allen C.T. Wife's occupational status as a consumer behavior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189-196, 1981.
4. Reilly M.D.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food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407-275, 1982.
5. 안숙자, 한국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조리과학회지*, 5(2), 1989.
6. 이용학,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대박사학위 논문*, 1985.
7. 김미향, 한재숙, 이효수, 도시 주부의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69-78, 1988.
8. 함인숙, 주부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가족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9. 김순옥, 이경옥, 이인선, 서울 주부의 가공식품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가정학보* 5, 1983.
10. 안숙자, 서울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5, 1989.
11. Lutz, S. M. Blaylock, J. R., and Smallwood, D. M. Household characteristics affect food choices, *Food Review*, 202, 12-18, 1993.
12. Burk, M. Inference of economics and social factors on U. S. food consumption, *Mineapolis*, 1969.
13. 임정빈, 서병숙, 이효지, 장유경,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 양식, *대한가정학회지*, 29(3), 1990.
14. 문수재, 이기열, 김숙영, 간이식 영양조사법을 적용한 중년 부인의 영양실태, *연세논총*, 203-215, 1981.
15. 박영선, 박명희, 박영숙, 울릉도 지역의 식생활 관리 및 영양소 섭취량의 실태조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지*, 8, 105-116, 1993.
16. 박영선, 박영숙, 한산도 지역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소 섭취량의 실태조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지*, 9, 19-29, 1994.
17.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나남*, 1984.
1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인의 영양권장량 (제5차 개정판)*, 교문사, 1989.
19. 보건사회부, 1989년 국민영양조사보고, *국민영양*, 92(4), 1992.